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5월 3주차)

1. 해외 동향

국가		주요 동향
미국	유통·소비	○ 인마 인텔리전스(Inmar Intelligence)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COVID-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식료품 쇼핑객이 매장 내 구매로 돌아오고 있다고 함.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소비자의 27%는 대부분의 식료품 쇼핑을 매장에서 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38%는 매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할 것이라고 조사됨(5.17/Supermarket News) ○ Whole Foods사는 2019년 동기대비 2020년 3월과 12월 사이에 온라인 판매량이 3배 증가(5.17/Specialtyfoods)
	바이어·수입	○ (T사) 선사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물동량이 많아 40피트 컨테이너를 사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2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컨테이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일본산 딸기를 구매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산 딸기 구매 희망함. ○ (H사) 40피트 컨테이너를 사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 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의 2배를 지급하며 사용중. ○ (S사) 한국에서 화물 컨테이너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운송비가 3배 이상 상승(3천불 → 9천불)하여 알로에음료와 같이 가격이 낮은 품목은 수입을 전혀 못하고 있음 ○ (W사) 해상물류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포장방법 등 개발 중
베트남	기타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규제 강화 - '21.5.5 0시부터 마사지/영화관/노래방 등 비필수 영업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식당 운영은 가능하나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확보 또는 가림막을 필수로 설치해야 함
태국	유통·소비	○ (이동제한) 하루 2천여 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태국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쇼핑몰 및 슈퍼마켓, 편의점 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내 취식 금지(배달 및 테이크아웃만 가능) 등 강력 대응 ○ (면역제품 선호) 코로나 이후 면역력 향상을 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 특히 비타민C를 비롯한 멀티비타민 함유식품 및 음료

		관심 증가. 저칼로리 비타민 음료 제품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콜라겐, 식이섬유 등 이너 뷰티 관련 제품군도 인기
	행사	○ 20명 이상 모임 금지로 각종 행사 및 전시회 등 잠정 중단 및 연기
	기타	○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3가지(Dark Red Zone, Red Zone, Orange Zone)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방역지침 강화 - Dark Red Zone(6개주, 방콕 등) : 20명 이상 모임 금지 / 식당 및 카페 21:00까지 포장 판매만 가능, 취식 금지 / 실내 운동시설 운영 금지 / 백화점 등 쇼핑몰 21:00까지 운영 / 편의점 및 수퍼마켓 23:00까지 운영 / 등교 금지 / 지역 간 이동 자제 등 - 방콕시, 외출 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최대 20,000바트 부과

2. 통관 · 검역 이슈

국가	이슈내용
미국	○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전역 항들의 하역 작업 등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음. 선사 요금이 뉴저지 엘리자베스 항까지 40피트 Dry 컨테이너 가격이 $15,000까지 오르고 있다고 함. 이로 인해 한국 농식품 수입 바이어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마진율이 낮은 음료 수입 바이어들은 수입 물량을 임시 홀드하고 있어 향후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aT와 수출 확대 미팅을 하고 있는 업체들 모두 코로나 팬더믹 기간 임시 운송비 및 물류 창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5.14)

<table>
<tr><th colspan="2">지역해관</th><th>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th><th>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바이어 대상 의견조사)</th><th>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th></tr>
<tr><td colspan="2">베이징
(北京)</td><td>불가</td><td>-</td><td>-</td></tr>
<tr><td colspan="2">톈진
(天津)</td><td>가능</td><td>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
* 품목별, 국가별 편차 큼</td><td>3~5일 (핵산검사X),
7일~10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td></tr>
<tr><td rowspan="2">상하이
(上海)</td><td>공항</td><td rowspan="2">가능</td><td rowspan="2">실시
(샘플링 비율 : 약 50~70%)
* <u>파프리카 등 냉장식품 약 50%</u>, 냉동식품 70%</td><td>1일 (핵산검사X),
7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td></tr>
<tr><td>항구</td><td>3~5일 (핵산검사X),
15일 (핵산검사O)
* 기존 3~5일</td></tr>
<tr><td colspan="2">광저우
(广州)</td><td>가능</td><td>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td><td>2~5일 (핵산검사X),
7~15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td></tr>
<tr><td colspan="2">칭다오
(青岛)</td><td>가능</td><td rowspan="3">일부 실시
- 냉동수산/냉동육류 : 100%
* <u>파프리카 등 채소와 과일</u>, 상온/냉장 일반가공식품, 냉장 수산물은 <u>핵산검사 미진행</u></td><td rowspan="3">1~2일(핵산검사X),
1~2주(핵산검사O)
* <u>파프리카와 같은 냉장 채소류</u>와 아이스크림 등 냉동 일반가공식품은 <u>해관 통관시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u> 시장감독관리국 요구사항으로 <u>전용창고 입고 후 소독과 핵산검사를 마쳐야 유통 가능</u></td></tr>
<tr><td colspan="2">웨이하이
(威海)</td><td>가능</td></tr>
<tr><td colspan="2">스다오
(石岛)</td><td>가능</td></tr>
</table>

※ 통관시 검사 :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샘플 채취)
※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